



# 시큐리티월드엑스포2005 개막 디지털정보 지킴이 '총출동'

'시큐리티월드엑스포2005'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영상보안·생체인식·무인 경비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솔루션이 대거 선을 보였다. IP서베일런스 등 여러 기능을 탑재한 다중 보안 시스템 등 차세대 디지털 보안장비들도 전시됐다.

글 권경희 기자·사진 이혜성 기자

**올** 해로 5회째를 맞는 '시큐리티월드엑스포2005'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정보통신부 주최, 전자신문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개국 130개 업체가 참여해 260여개 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시큐리티월드엑스포2005에는 최근 핵심 기술유출과 다양한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보호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세미나를 통해 대거 소개됐다.

물리적 보안의 필수품인 CCTV에서 차세대 출입통제 솔루션과 웹 암호화와 DB암호화로 내부 사용자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공개키 기반구조(PKI) 및 암호 인증 보안 솔루션 세미나도 열렸다. 제5회 보안산업 콘퍼런스 및 기술 세미나, PHI 및 암호 인증 보안 솔루션 세미나,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시장현황 및 기술전망 세미나, NETSEC-KR 2005 등 4개 세미나도 마련됐다.

## 콘퍼런스 및 기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첫째날인 19일 코엑스 콘퍼런스룸 320호에서는 제5회 국제 보안산업 콘퍼런스 및 기술세미나가 열렸다. 물리적 보안의 최신 현황을 알 수 있는 이 세미나에서는 정철환 하이트론시스템즈 부장이 'CCTV 보안과

IP서베일런스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또 장지현 대동기재 사장이 '보안검색장비의 최근 제품 출시경향과 기술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321호에서 열린 PKI 및 암호 인증 보안 솔루션 세미나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내 PKI 정책 방향'을, 이니텍이 'PKI기반의 보안 메일 솔루션'에 대해 발표했다. 비씨큐어는 '금융 및 공공분야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 펜타시큐리티는 '웹 암호화와 DB암호화 솔루션'을 소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2005년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시장 현황 및 기술전망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 현황과 2005년 전망이 발표됐다. 또 다양한 웹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및 적용사례가 소개됐다.

20일부터 21일에는 NETSEC-KR 2005가 열렸다. 20일 학회 트랙 A에서는 염홍렬 순천향대 교수가 'IT839 정보보호기술'에 대해 양대현 인하대 교수는 'Ad Hoc 네트워크 보안'을, 오희국 한양대 교수는 'RFID 보안 기술' 등 최신 보안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트랙 B세션에서는 노병규 KISA 팀장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최운호 금결원 부부장이 '대규모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동화된 침해사고대응시스템'을 발표했다. 21일 둘째날에는 ▲인프라보호 ▲서비스보호 ▲다바이스 보호 ▲정보보호 응용 등 4개의 트랙별로 학회가 진행됐다.



## 암호솔루션, 콘텐츠 보안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이번 행사에는 DVR·CCTV카메라 등 영상감시시스템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출입통제 시스템, 홈시큐리티 시스템, 생체인식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 등이 대거 전시됐다. 또 인증 및 암호솔루션, PC보안 솔루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콘텐츠 보안 및 저작권 관리, 보안 컨설팅 및 서비스 등의 업체들도 참가해 주력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해까지 DVR과 지문인식업체가 주류를 이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새로운 분야의 보안 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특히 생체인식의 경우 지문인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혈관인식과 홍채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제품이 출품됐다.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전시회의 한계를 탈피해 전시장내 신제품 발표회장을 설치, 전시장 내에서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해당 부스에서 곧바로 상담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기술 중심의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갖춘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회는 보안 분야별 최신 기술의 경연장이 됐다. 이전 단품 위주의 장비나 시스템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통신 개념을 강화한 영상보안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기 때문이다. 이전 산업용으로만 인식되던 영상보안 장비들은 이제 집 앞 편의점이나 식당은 물론 가정에 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발달한 네트워크 카메라와 소형 저장장치,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보안 등은 이번 전시회에 불거리를 제공했다.

## 고사양 영상보안 제품 대거 출시

이에 이번 전시회에는 MPEG 4 등 고사양을 지향한 DVR 제품과 각 용도별 특성에 맞게 설계된 영상보안 시스템 등이 대거 선보였다. 코디콤·피카소정보통신 등 국내 업체는 물론 한국하니웰과 소니코리아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도 참가해 네트워크 카메라와 DVR 등 영상보안 제품 등을 출품했다.

한국하니웰은 CCD 감시 카메라, 스피드 돔, DVR 등의 CCTV 시스템 이외에 다양한 출입통제 시스템과 열선 감지기 등의 알람 시스템을 모두 전시했다. 소니코리아도 네트워크 카메라와 다양한 영상보안 솔루션을 출품했다.

코디콤은 32채널 PC 타입 제품 이외에 스탠드얼론형 3개 모델을 선보였다. 400Mbps의 빠른 영상 전송속도에도다 자체 진단 및 복구 기능을 확보한 제품이다. DVR을 보완하는 KSS400이라는 외부 확장용 저장

장치도 선보였다.

피카소정보통신도 주력 DVR제품인 마스터 시리즈 이외에 저장장비, 중앙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출시했다.

아이디스의 DVR을 해외에 대부분 공급해온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영상보안제품은 물론 항만·공항 등 특수한 지역의 시큐리티SI 구축 사례 등도 제시했다.

그밖에 나다텔과 인투텍·휴먼시큐리티·크립토텔레콤·프로스타 등도 다양한 용도의 DVR와 관련 보드, 네트워크 카메라 등 다양한 디지털 영상보안 연계 제품을 출품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영상보안 제품의 특징은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과 일반 용도의 제품보다 각 용도에 맞춘 전용 제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IP서베일런스·다중보안 등도 눈길 끌어

IP서베일런스도 화두였다. 영상감시 시장에 DVR없이 전용 단말기로 스토리지나, 웹하드에 영상을 저장하는 IP서베일런스 시스템이 많이 출품됐다. 새로운 개념으로 꼽혀왔던 웹기반의 영상보안 시스템이 이제는 대체처를 확산되고 있다는 것. 소니코리아와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엔아이 등이 이에 대한 장비와 솔루션을 선보였다. 하이트론씨스템즈는 IP서베일런스 대한 신기술 콘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다중 보안 시스템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혈관인식 업체인 테크스 피어는 니트젠, 퍼스텍 등 지문인식 업체와 공동 개발중인 다중생체인증 시스템을 선보였다. 향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지향한 장비다. 그밖에 케이코하이텍과 한국 HID는 기존 RF방식의 출입 통제기에 지문인식을 추가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철욱 HID 한국지사장은 “보안 의식 강화 속에 향후 물리적 보안 시스템에 여러 기능을 추가 탑재한 장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의 주요기업체 관계자는 물론 다양한 인사들이 관람했다. 경찰청 소속의 양근원 인터폴아시아역 IT범죄협의회 부회장은 물론 강상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종해 한국경비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띄는 등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토털 보안 전시회임을 입증했다. 행사 주최측은 3일동안 약 1만3,000여명의 방문객과 50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했다. ●